

1百億弗 高地의 一翼을

輸出

「先工業 後農業」의 開發順位

한 나라가 經濟成長을 꾀하는 基本方向을 設定하는데는 그 나라의 歷史的·會社的 背景 그리고 立地條件, 氣候風土는 勿論, 物的, 人的 條件 등을 綜合的으로 勘案, 設定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인즉 基本方向의 根幹的인 것으로서의 開發順位를 「先工業 後農業」「先農業 後工業」의 어느 것을 擇할 것이냐에 慎重한 檢討를 거듭한 끝에 前者를 取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62년부터 시작한 1, 2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期間에 工業置重의 開發을 強力히 推進한 結果, 國際異例의 成功的인 計劃完遂를 하였고 72~76年の 第3次 5個年計劃은 農業開發에 力點을 두는 內容으로 짜여졌다. 先工業 開發에 이은 後農業 開發은 새마을 事業 計劃의 龍大한 追加로 말미암아 3次 5個年 計劃을 마련하였던 當初 展望보다도 農漁村開發은 規模, 速度 등의 擴大, 促進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기는 重化學 工業建設의 巨大한 計劃이 農業開發의 歷史的인 大計劃을 印象的으로 格下시킨 感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80年代初에 年間 百億弗의 輸出을 하자면 重化學 工業時代를 構築하지 않고서는 아니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80年代初에 百億弗의 輸出目標을 達成하자면 產業構造를 再編하고 生産施設을 改善하며, 技術을 刷新하고 新商品을 開發하며 既存市場의 擴大와 新市場의 開拓 등 多角的인 努力이 必要해진다. 특히 輸出商品의 多樣化 즉 國際市場에 우리가 일찌기 보내지 못했던 商品이 登場케 하는 것은 크게 바

食品の 수출역사는 크히 짧으나 얼마 전부터 수출유망 주로 등장,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食品業界는 이미 제품수출관계를 벗어나 기술과 자본 까지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고 있어 80년대 수출고지 1백억 \$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金 尙 榮

(國會議員·産業政策研究所理事長)

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또 有望輸出商品으로서 이미 海外에 進出하여 굳건히 발을 붙이기 시작한 商品의 輸出増大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대단히 重要한 일이다. 이에 屬한 品目中の 期待 큰 하나가 輸出食品이다.

輸出有望株의 食品

食品의 輸出歷史는 극히 짧다. 그러나 短期間에 快速의 前進을 해온 寵兒의인 輸出商品이며 또 高率伸長이 豫망되는 有望株로 손꼽아지고 있는 것이다. 67년까지는 적지않은 輸入品이었던 食品이 68년에 少量 輸出「코오스」로 접어들어 70년부터는 輸出品으로 눈에 띄이기 시작하였고 그後 每年 百分 程度의 輸出增加를 보인 끝에 今年度는 輸出目標 5千 3百萬弗을 策定하기에 이른 것이다. 越南 輸出條件의 根本的인 變動이 없었다면 라면을 비롯한 輸出目標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輸出食品은 라면, 菓子, 설탕, 통조림, 調味料 및 其他를 들수 있는데 輸出量에 比해서 그 輸出地域이 廣範한 것을 注目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食品輸出이 앞으로 急激히 늘어날 素地가 發見되는 것이다. 市場多邊化의 온 必要性은 全體輸出 또는 品目別 및 類別輸出의 어느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食品 輸出先을 概觀한다면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日本 등의 東南亞地域과 中美의 트리니다도, 中東의 쿠웨이트, 키르레스, 北阿의 리비아, 北歐의 덴마크 등 各地域의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며 東歐圈의 유고에도 少量의 輸出을 보게 이르렀다.

食品輸出이 이와같이 市場 多邊化에 成功한 것은 關係官民의 努力의 結晶이라 하겠거니와 모처럼 開拓된 市場을 熟田으로 擴大하기 위

해서 새로운 構想과 萬全의 뒷받침이 要請된다. 新市場에 발을 붙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또 同時에 일단 발을 들여놓은 市場을 擴大하여 國際競爭에서 不動의 勝者가 되는 것이 말붙이는 努力보다 그 얼마나 험겨운 일인가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國際市場의 生理는 변덕스러운 側面도 있어서 새로이 登場한 商品에 즐겨 눈길을 보내며 輸出하는 편에서도 新市場 開拓을 위해 輸入者에게 利로운 條件을 供與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그러므로 試驗的 購買와 初期去來의 特別 서비스의인 去來條件은 모두 後退의 可能性을 內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食品工業界가 市場調査에 더욱 힘써 한번 발을 붙인 市場을 擴大, 固守한다는 姿勢를 굳혀야 하고 關係當局이 또한 積極 支援해 주지 않아서도 안될 것으로 믿어진다.

資本과 技術의 海外進出

商品輸出의 始發에는 뒤떨어진 食品이 技術과 資本의 海外進出에는 앞선 食品工業이었다 거기에 食品工業人들의 進取的인 氣風이 發見되는 것 같다. 勿論 食品工業이 海外에 資本進出을 한 最初의 工業은 아니었지만 先驅에 屬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 例를 들자면 라면工業界가 지난해 「브라질」에 資本과 技術을 投入하여 좋은 成果를 거둔데 自信을 얻어 印度에도 工場을 新設할 計劃이라고 한다. 그리고 調味料工業도 昨年 에 이미 「인도네시아」에 工場을 新設, 竣工하였으나 74年度에는 工場施設을 擴大할 計劃이 과 傳聞될 程度의 業績이다.

食品工業의 海外投資는 여러 가지의 意味를 지니는 것이다. 첫째, 海外에 投資함으로써

市場擴大를 促進시킬 수 있고 두께 技術의 同時進出이란 二重效果를 거두게 되며 세계 相對國과의 紐帶強化의 契緣이 되고 네째로 其他 商品의 輸出增加와 原料確保에 寄與할 수 있게 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食品工業界가 海外投資에 더욱 積極的인거를 바라면서 두가지 點을 附言해 두고 싶다. 즉 可及의 관계 資源保有國에 投資하여 앞으로 持續될 可能性이 짙은 資源確保難에 對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될수 있는 限 現地資本과 合作投資를 하여 相互發展에 도움되게 하는 것이 賢明한 處事인 것 같다는 것이 그 다른 하나이다.

資源國에 資本과 技術을 進출시키는 것이 어느 경우 어느 意味에서는 國內에 工場을 新設하는 것보다도 훨씬 安全且有利하다. 왜냐하면 原料確保難에서 벗어나고 市場開拓에 便益이 크기 때문이다.

內需用과 輸出品의 轉用이 可能

食品工業이 지니는 工業으로서의 格別한 意義는 먹는 것을 만드는 工業인 것에 있다. 사람은 먹어야만 사는 弱點에 不斷의 拘束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工業에 依한 食品은 어느時間 어느場所에서도 製品그대로 또는 簡單한 過程만을 거쳐서 먹을 수 있는 長點을 保有하고 있는 食品이다.

언제부터인가 全國土를 生産圈化해야 한다. 全 生産品을 輸出品化 해야 한다는 口號的인 말이 귀에 익혀져 왔다. 좋은 「슬로건」이라 생각한다. 全國土를 生産圈化 하는 것은 國土를 生産的으로 高度의 利用을 하자는 뜻이고 全 生産品을 輸出品化 하는 것은 輸出을 增進시키려는 意慾을 表示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品質向上을 刺戟하는 것도 그것이다.

輸出을 하자면 內需品보다 더 優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常識이다.

한편 商品은 必要에 따라서 輸出待機品을 國內需要로 轉用하고 그와는 反對로 內需用商品으로 生産한 것을 輸出需要에 充當하는 機動性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는 所望스러운 일이다. 특히 食品의 경우에 그러해야 할 것이며 그 理由는 위에 말한 食品工業의 特徵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周邊情勢는 內需食品의 相當한 量의 在庫를 必要로 하고 있으므로 業界와 關係當局은 食品의 常時 適正量 在庫保有에 留意있어야 할 것이다. 또 그러기 위한 施策上 支援이 期待된다.

嗜好의 把握・開發

앞으로 食品工業이 輸出市場을 擴大하고 輸出의 急進的인 增大를 하려면 여러가지의 與任 強化와 創意가 따르지 않아서는 안되려니와 여기에 세가지만 例擧해 두고자 한다.

첫째로 同業者끼리의 競爭을 避해야 한다. 원래 競爭은 자칫 잘못하면 共倒의 不幸을 가져오기가 쉬운 것이며 더우기 海外市場에 까지 나가서 同業者間의 競爭을 벌이는 것은 各國의 輸出業者들 그리고 現地業者 및 消費層에 대한 우리의 矜持問題이다. 한걸음 나아가서 國內에서와 같이 競爭熱이 度에 지나친 나머지 相互間에 謀略・中傷手段으로 라이벌 商品의 公信力을 꺾아 내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한다면 이는 우리 企業社會의 耻部를 國際經濟社會앞에 드러내는 꼴이 된다.

두째로 品質向上에 各별한 留意와 努力을 傾注해야만 될것 같다. 우리나라의 實情만 하더라도 食品嗜好의 上向의 變遷이 國民의 所得增大와 正比例해지고 있음이 注目된다. 消費者는 所得이 늘어날수록 高級食品을 要求하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國產食品의 輸出市場은 主로 開發 途上國들이고 先進國圈은 一部에 不過한 實情 이다. 그런데 이들 非先進國의 國民所得이 高 率伸長의 過程에 있으므로 우리 國內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날이 갈수록 보다 높은 水 準의 食品을 嗜好케 될 것이 뻔한 노릇이다. 國內輸出食品 工業者가 輸出對象國의 國民所 得上昇度에 맞추어서 製品의 質과 包裝의 水 準向上을 꾀하지 않는다면 애써 開拓한 市場 의 喪失을 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輸出對象國의 自體食品工業(開發 途上 國인 경우)의 開發進도를 銳意 注視하면서 항 상 그들 國產食品보다 品質 좋고 값싼 製品을 輸出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가치 重 要한 것이 海外市場의 嗜好把握 및 새로운 嗜 好開發이다.

즉 한편으로 輸出對象 國民의 傳統的인 特 有한 食性·嗜好에 맞추어서 輸出品을 生産하 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새로운 食性·嗜好 를 불러 일으킬 만한 新製品을 開發하는 嗜好 開發이 並行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 國民의 食生活 構造가 해마다 조 금씩 變해져 가고 있다. 約 10年前인 62年度 에 糧穀消費 70%, 其他 食品이 30%이었던 것이 지금은 60對 40%로서 其他食品이 10% 늘어난 것이다. 食品工業의 進出을 말해주는 一面이다. 其他食品의 伸長率이 100% 食品工 業과 直結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部分이 이에 聯關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食品輸出은 每年 100% 內外 의 伸長이 可能視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原 料確保의 展望은 극히 不透明하다. 아니 悲觀 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 食品工業의 主原料의 하나인 小麥이 生産實績과 展望은 다음과 같이 해마다 不足量이 늘어났으며 앞 으로도 그러할 政府의 需給展望이다.

즉 66年 45萬 9千톤, 67年 80萬톤, 68年 1百 13萬 1千톤, 69年 1百 25萬 5千톤, 70年度 1百 20萬 2千톤, 71年 1百 43萬 2千톤, 72年 2百 5萬 9千톤 등으로서 每年 供給不足量의 伸長 을 계속하여 왔고 그동안에 前年 對比 不足量 이 줄어든 것은 70年度 한해 뿐이었다.

그리고 農水產部의 長期 小麥需給展望에 따 르면 76年度의 生産計劃이 27萬 3千톤에 不過 하여야 2百 55萬 1千톤의 供給不足이고 81年에 는 그보다 더 많은 供給不足量인 2百 70萬 4千 톤(生産計劃은 31萬톤)을 豫想하고 있는 農水 產 當局이다.

한편 農水產部의 展望으로는 쌀, 보리는 모 두 76년부터 生産, 需要가 一致될 것으로 되 어 있는데 小麥만은 엄청난 供給力不足을 豫 想시키고 있으므로 이 不足量을 全의으로 輸 入에 依存할 수 밖에 없게 되며 또 그것은 美 國產에 期待하고 있는 것으로 常識化되어 있 는 것이다.

그런데 小麥의 問題點이 또하나 發生되었다. 美國 政府가 앞으로는 現金去來의 方式으로 公 法480號 剩餘農產物을 지금까지의 授援國家에 供給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같은 美國政 府의 措置는 우리의 財政構造에도 그나름의 影響을 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小麥問題는 內需確保 그리고 輸出 食品의 原料對策 및 其他에 걸친 複合的인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데 百年大計 로는 積極的인 政策支援으로 國產增加에 힘써 야 하겠다. 쌀과 보리외에도 달라서 增產條件이 좋지 못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까지 는 輸入하는 것이 有利하여 價格上 增產意慾 을 阻害한 點이 없지도 않았다. 自給自足線에 는 멀리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水 準까지의 增產은 政府와 農民의 熱意如何에 따 라서 可期할 수 있을 일이다.